

# 곡성군, 2024년 원예·과수·특작분야 보조사업 신청접수

## 1월 19일까지 총 9개 사업 읍·면사무소 신청

곡성군은 오는 1월 19일까지 원예·과수·특작분야 8억 원 규모, 총 9개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노후 원예하우스 시설개선 ▲원예용 중형관정 ▲다목적 시설하우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과수생

산기반 구축 지원 ▲신규 과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계 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은 접수결과를 토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2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원예팀(061-360-88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 원예분야 보조사업은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2월중에 신청 받을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농업인은 반드시 자부담 우선 확보 및 전문업체 견적·설계 등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 순천시, ‘해맞이’ 행사 성료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천 일원 그린아일랜드에서 5천여 명의 시민과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2024년 갑진년(청룡의 해) 해맞이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해맞이 행사는 기(氣)무예단의 우렁찬 모듬북 공연에 맞춰 동천 국가하천 승격을 축하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청룡 여의주에 소망 쓰기, 새해 덕담 나누기,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직접 들어보는 현장 인터뷰 등으로 진행됐다.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순천시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새해 소망을 기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AI와 함께 미래로 가는 K-디즈니 순천을 완성해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 도약하겠다”며, “28만 순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맞이 행사는 박구 윤훈회관(대표 고영우)에서 2천명분의 떡국을 후원했고 농협시지부·광주은행에서 핫팩과 어묵을 후원했다. 또, 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본부장 황금영)에서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떡국 나눔 봉사와 교통관리 등에 참여했다. /최종민 기자



광양시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과 간부공무원 등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에서 청렴실천 결의식을 가졌다. /광양시 제공

## 광양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다짐’

광양시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과 간부공무원 등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에서 청렴실천 결의식을 가졌다.

이번 결의식은 ‘청렴을 약속합니다’라는 주제로 새해를 맞이해 간부공직자가 솔선해 청렴행정 실천에 앞장서고 전 공직자가 청렴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결의식은 지난해 처음 공직에 입문한 신규 직원 2명이 1천500여 공직자를 대표해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어서 정인화 시장과 김기홍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직원들 앞에서 반부패·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을 대내외에 다짐했다. 또한,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

하고 청렴한 광양’ 실현을 위해 전직원이 청내 방송을 시청하며 각 부서에서 자체 청렴실천 결의 및 청렴서약도 추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최우선 가치”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시민이 함께하는 청렴한 광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민 기자

## 여수, 2023년 여수시 통계조사 결과 공표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2023년 여수시 사회조사’와 ‘2023년 여수시 베이비부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 ‘베이비부머 통계’는 여수시 베이비부머의 사회·경제적 삶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 생활여건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아졌으며, 여수시 베이비부머 인구 비율은 15.1%로 전국보다 1.3%p 높았다.

우선 ‘2023년 여수시 사회조사’는 지난 9월 관내 1천8개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1천701명을 대상으로 가구·가족, 사회복지, 소득·소비, 교육, 공동체와 사회참여 등 12개 부문 47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6.5점, 지역생활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만족도가 각 0.1점씩 높아졌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주여건으로는 지역의료수준 향상(21.2%), 주거비용 안정(25.0%), 교통여건 개선(2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필요하거나 늘려야 할 편의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 24.5%로 가장 높았다.

또 ‘2023년 여수시 베이비부머 통계’는 2022년 기준으로 1953~1963년 출생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인구, 재산, 복지, 고용, 건강 5개 분야 90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2022년 기준 베이비부머 인구는 4만1천590명으로 여수시 인구의 15.1%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 베이비부머 인구 비율 13.8%보다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1천587명으로 여수시 전체 수급인구의 23.9%를 차지, 베이비부머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3천653명으로 여수시 장애인등록 인구의 20.6%로 나타났다. /최종민 기자

## 구례군, 우리 밀 쌩쌩 밟기 챌린지 추진

1991년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의 시초가 됐던 구례군에서 꺼져가는 우리 밀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나섰다.

2020년 기준 국내 밀 수요량은 약 223만 톤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밀은 1만 5천 톤으로 밀 자급률은 0.7% 수준이며 2016년 1.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국내 밀 생산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밀 자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 밀의 역사와 함께하며 지금까지 우리 밀을 지켜오고 있는 구례군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전 국민이 우리 밀의 중요성과 장점을 알게 돼 우리 밀 소비가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경석 기자

**2대째 이어온 정통방식의名品[名品]**

# 죽가네 경성굴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으로 간하고 해풍과 습도가 알맞은 영광 법성포에서 건조하여 그 깊은 고유의 참맛을 유지하였습니다.

**경성**  
굴비

**대표**  
**이 경 률**

매장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3  
공장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2길 48  
주간 061) 356-2173      아간 061) 356-5932  
팩스 061) 356-4215      문자 010-8604-1486  
핸드폰 010-3624-2173 / 010-3833-2173  
농협 351-1092-5533-13 예금주 : 이경률